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6. 3. 24.(화) 12:00
(지 면) 2026. 3. 25.(수) 조간

보고서 꾸미는 시간에 민생 현장으로, 행정안전부, 'AI친화 행정문서 혁신' 시범 실시

-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, 불필요한 꾸미기 금지 등 '실용주의' 도입
- AI가 만든 보고서를 바로 보고할 수 있게 개선해 공공 AX 앞장서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가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업무 부담이었던 '복잡한 보고서 작성' 관행을 깨고, 쉽고 빠른 문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보고서 혁신에 나선다.
-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 시 인공지능(AI) 시대에 맞는 행정을 위해 보고서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, 이번에 마련된 「AI시대 행정문서 작성 가이드라인(이하 가이드라인)」을 통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.

<주어·서술어 명확히, 기계도 사람도 읽기 쉬운 문서 도입>

- 행정안전부는 보고서 혁신의 첫 단계로, 가이드라인을 부 내에 배포하고 모든 부서에서 인공지능(AI) 친화적 보고서 작성을 시범 실시한다.
- 이번에 배포된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예쁜 문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, 누가, 무엇을, 어떻게 하는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실용성에 방점을 두었다.
- 주어와 서술어를 명확히 기술해 모호함을 없애고 문장 구조를 단순화했으며, 복잡한 셀 병합을 금지하고 단순한 구조의 표를 사용해 가독성을 높인다. 아울러, 공문서 작성 표준 번호체계(I., 1., 가., 1), 가), (1), (가), ①, ㉠)를 준수해 체계성을 잡는다.

<AI 친화적 행정문서 작성이 가져오는 변화>

	현행	개선
AI 가독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어·서술어가 생략된 개조식 문장이나 복잡한 표 등으로 학습에 제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부 공문서를 정확하게 학습
문서 작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무원이 문서작성 및 민원 대응 전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AI를 활용한 자료 요약, 회의록 자동 생성, 보고서 초안 작성 단순 민원 응답 등 AI 수행
자료 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단편적 통계자료 활용 부처간 정보 활용 제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정부 빅데이터 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 및 현장 맞춤형 정보 제공
업무 패러다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노동 집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능 집약 국민 맞춤 행정서비스 집중

□ 이러한 변화는 공무원이 보고서 꾸미기에 쏟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뿐만 아니라, 인공지능(AI)이 내용 초안을 돕던 수준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방안까지 제시하는 시대에 맞는 업무방식으로 근본적인 재설계를 하는 첫 걸음이 될 전망이다.

□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(AI) 친화적 문서작성 교육을 2차례 실시했으며, 장관 보고 문서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공지능(AI) 친화적으로 작성하도록 할 방침이다.

○ 아울러, 행정안전부 내부 지능형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(AI) 친화 문서 작성을 위한 문서 변환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, 한 달간 시범 실시한 뒤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을 거친 후 적용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.

< 인공지능(AI)을 활용한 업무혁신, 윤호중 장관 솔선수범 의지 밝혀>

□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혁신이 직원들의 노력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. 윤 장관은 “장관에게 올라오는 보고서부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작성하도록 해달라”고 지시하면서,

○ “장관부터 먼저 보고서의 겉치레보다는 담긴 내용과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하겠다”고 밝혔다.

- 행정안전부는 행정문서 혁신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인공지능(AI)을 통한 데이터기반 의사결정을 하고,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발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(AI)을 활용한 다양한 업무혁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.
- 아울러, 직원들의 인공지능(AI) 활용 능력 강화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 직원에 대한 인공지능(AI) 활용 교육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박순영 (044-205-1461)
		담당자	사무관	박은희 (044-205-1473)
	참여혁신조직실 정보공개제도과	책임자	과 장	이경하 (044-205-2403)
		담당자	사무관	김지현 (044-205-2411)
	인공지능정부실 공공인공지능혁신과	책임자	과 장	정준우 (044-205-2281)
		담당자	서기관	박범수 (044-205-2290)



<참고> AI 가이드라인 적용 전/후 예시

□ 적용 전

서면보고	2026.00.00.(금)	혁신행정담당관 000(010-1234-5678)
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AI 시대 행안부 행정문서 작성 가이드라인(안) 보고

1 추진 배경

○ AI시대 사람과 AI 모두 읽고 쓰기 쉬운 문서 작성 체계 마련 필요

종 류	국내 AI모델 인식수준	
문자형 정보	문자	· 정확하게 인식
	단순 표	· 표 내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
	문단 간 관계	· 특수기호(□, ○, - 등)로 구분한 관계에 대한 인식 오류
시각적 정보	줄 간 병합 표	· 병합 관계를 추론할 수 있으나, 복잡할수록 오류 증가
	표 안의 표	· 표 간 관계와 의미 이해 과정에 오류 다수 발생

□ 적용 후

AI 시대 행안부 행정문서 작성 가이드라인(안) 보고

⇒ 제목 부문의 불필요한 서식 제외 (박스 제외)

서면 보고 / 2026. 3.00.(금) / 000과장(홍길동)

1. 추진배경

○ 정부는 사람과 AI 모두 쉽게 읽고 작성할 수 있는 표준화된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

⇒ 내용은 주어와 서술어를 명확하게 기술하는 서술식으로 작성

문자형 정보	⇒ 논리적 오류 방지를 위해 셀 병합 없이 표 분리
종 류	국내 AI모델 인식수준
문자	· 정확하게 인식
단순 표	· 표 내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
문단 간 관계	· 특수기호(□, ○, - 등)로 구분한 관계에 대한 인식 오류
시각적 정보	
종 류	국내 AI모델 인식수준
줄 간 병합 표	· 병합 관계를 추론할 수 있으나, 복잡할수록 오류 증가
표 안의 표	· 표 간 관계와 의미 이해 과정에 오류 다수 발생